

# 전주 특색 담긴 답례품 선정 나서

### 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12월 4~6일 접수

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농·축·임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의 3개 분야로, 현재 국제·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4

일부터 6일까지 전주시청 자치행정과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81-2158)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누리집이나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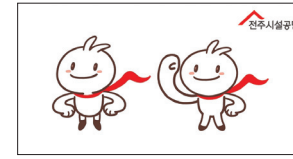
전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주의 특색이 담긴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캐릭터 '으쓱이' 자체 제작

###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들어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공단 캐릭터를 자체 제작했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새롭게 탄생한 공단 캐릭터의 이름은 '으쓱이'다. 공단의 경영 철학인 'ESSG' 으쓱 경영'에서 이름을 따다. '으쓱'은 E(Environment, 환경)와 S(Social, 사회), S(Safety, 안전), G(Governance, 지배구조)을 한글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시민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겠다는 공단의 의



전주시설공단의 새 캐릭터 '으쓱이'

지를 담았다. 으쓱이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 적극적으로 달려가겠다'는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캐릭터다.

머리 위 두 가닥의 깃털은 '안테나'를 상징하며, 공단과 시민의 상방향 소통을 의미한다. 목에 두른 '빨간 스카프'는 공단 로고를 응용했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으쓱이는 각종 행사와 홍보물, 굿즈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캐릭터를 만들었다. 으쓱이와 함께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도, 전북도의회와 공동주최한 전북ESG 지속가능 포럼을 개최했다.

# 완주·전주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대회 성료

완주·전주 상생 발전을 위한 '2023 완주·전주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완주 봉동 생강골 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전주·완주 8차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대회는 양 시군 체육계가 손을 맞잡고 추진한 것으로,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이 후원하고 완주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북에서 활동중인 파크골프 생활체육동호인 등 총 8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참여한 파크골프 선수들은 첫날 김인태 전주 부시장과 조영식 완주 부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예선전을 거쳐 결승 진출팀을 가렸다.

이후 지난 18일 결승전을 통해 전북



완주·전주 상생 발전을 위한 '2023 완주·전주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완주 봉동 생강골 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지역 파크골프 최강자를 가렸다.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전주와 완주가 이번 파크골프대회를 시작으로 체육 분야에서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과 전주시는 지난해 11

월 상관저수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전주·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 등 총 8차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총 20가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 지역 ESG 현황 공유·ESG경영 활성화 논의

### 전주시의회, 전북 ESG 지속가능 포럼 개최

전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박형배(효지5동), 장재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서연(진북,인후1·2,금안1·2동) 의원과 전북도, 전북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전북 ESG 지속가능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북ESG 지속가능 포럼은 탄소중립 기조 확산에 맞춰 기업의 경영도 비재무적 지표인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사회 내 주체 간 협력 확대를 통한 ESG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다뤄졌다.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 지속가능센터 장영희 연구소장의 ESG 현황과 중소기업대응전략,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심보균 이사장의 전북 공공기관 ESG사례와 발전방향, MYSC 제주시자 윤혜원 선임연구원의 사회가치투자자와 지역 ESG 등 각각 15분씩 이뤄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수영 본부장을 좌장으로 발제자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소영 사무국장, 김도현 변호사, 서난이 전북

도의원, 최서연 전주시의원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에서 최서연 의원은 "최근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돌파할 방법 또한 ESG에 있다"며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등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포럼을 주최한 박형배, 장재희 의원은 "탄소중립은 시대의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기업들의 ESG경영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담근 김치 나눔

(사)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회장 오영환)는 올해 회원들이 텃밭에서 키운 배추와 무 등 감장 채소를 활용해 담근 60kg의 김치를 20일 민들레 대안학교에 전달했다.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는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을 활용한 도시환경개선과 도시공동체 운동, 사회복지·교육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20년부터 매년 회원들이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취약계층과 나눠 왔다.

회원들은 내년에는 기존 텃밭 운영은 물론, 도시농업을 활용한 교육활동과 관련 박람회 참가 등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해 계획이다. 오영환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이렇게 훌륭한 음식이 되어 어려운 이

의 식탁에 올라가게 되니 흐뭇하고 보람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도시농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